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의 역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History of School Struggle in the Netherlands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chool Struggle (*Schoolstrijd*) in nineteenth-century Netherlands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Dutch School Struggle was a prolonged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that challenged the state's monopoly over education and demanded freedom of education based on religious and worldview convictions. The struggle reached a critical turning point with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1917, which institutionalized financial equal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cluding Christian schools. Focusing on the Reformed tradition represented by figures such as Guillaume Groen van Prinsterer and Abraham Kuyper, this study analyzes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the School Struggle. These thinkers understood Christian education not as a private religious privilege, but as a public responsibility aimed at forming morally grounded and socially responsible citizens. Such an understanding provided the normative basis for Christian schools to receive state funding while maintaining educational autonomy and confessional identity. Drawing on this historical experience, the study reflects on the current challenges faced by Christian education in South Korea. It argues that Korean Christian education should move beyond a defensive emphasis on religious freedom and articulate more clearly its public mission and contribution to the common good within a pluralistic society. The Dutch School Struggle thus offers an important comparative and theological reference point for rethink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 in contemporary educational discourse in South Korea.

Key words: School Struggle, Christian Education, Public Responsibility, Reformed Tradition, Freedom of Education

* 2025년 11월 7일 접수, 2026년 2월 27일 최종수정, 3월 3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AI 융합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한국의 교육체제는 학령인구 감소, 사교육 의존 심화, 공·사립학교 간 구조적 불균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여 많은 학교가 폐교하고 있고 공교육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비 부담 완화, 학교 간 형평성 보장, 교육 선택권 보장 등 제도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 학교에서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정체성 유지의 어려움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독교 교육이 공적 영역에서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신학적·교육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네덜란드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정부로부터 동등하게 재정적 지원을 받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으며,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독특한 교육체제를 확립해 왔다. 이 제도의 기원은 약 110년 동안 이어진 “학교 투쟁(Schoolstrijd: 1806-1917)”을 통해 헌법에 명문화된 “교육의 자유” 원리에 있다. 대부분 사립학교는 기독교이며 공립학교보다 두 배나 더 많다.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전액 재정 지원을 받는 곳은 네덜란드가 유일하며 이러한 전통은 이미 백 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가 어떻게 이런 제도 및 재정 정책을 펴게 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지 본 논문에서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교육은 핵심 제도로 기능해 왔으나, 국가의 교육 통제와 시민사회의 교육 자율성 사이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세기 네덜란드에서 전개된 학교 투쟁은 이러한 긴장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종교적·세계관적 신념에 기초한 교육의 자유가 국가의 공교육 체제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 투쟁은 기독교 교육이 단순히 사적 신앙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공적 책임을 지닌 교육으로 이해될 가능성을 역사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본 주제에 관해 네덜란드어나 영어로 된 문헌은 다수 있으나(Wijck, 1885 ; Langedijk, 1937 ; de Bruin, 1985 ; Hooker, 2009 ; Anders, 2011 ; De Groot, Daas & Nieuwelink, 2022 ; Broer, van der Walt & Wolhuter, 2024 등) 기존 연구들은 학교 투쟁을 주로 정치사적 타협이나 제도 변천의 관점에서 설명해 왔으나, 기독교 교육이 공적 영역에서 어떠한 신앙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교육학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네덜란드의 경험이 오늘날 국가 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한글로 된 연구는 조성국의 기독교 관련 논문(조성국, 2009: 21-52) 및 네덜란드 교육의 재정 정책(최용준, 2017: 65-111)에 관한 논문 외에는 거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네덜란드 학교 투쟁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면서, 그 사상적 기반에 놓인 개혁주의 전통의 교육 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이 어떻게 결합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 기독교 교육이 직면한 제도적·사회적 과제를 재조명하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 교육이 어떠한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준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네덜란드 학교 투쟁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전개되었는가? 둘째, 학교 투쟁은 1917년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어떤 제도적 성과를 낳았는가? 셋째, 그 이후 네덜란드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이러한 경험은 결론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무슨 교훈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를 통해 한국 기독교 교육이 단순한 사립 교육의 한 형태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어떠한 신앙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II.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의 역사와 한국 상황에 주는 함의

1. 네덜란드 학교 투쟁의 역사적 배경

1) 깔뱅주의 교육

네덜란드 교육의 뿌리는 16세기 종교개혁과 더불어 자리 잡은 깔뱅주의 전통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1568년부터 1648년까지 스페인에 대항한 네덜란드의 독립전쟁도 가톨릭 제국에 대한 개신교적 저항의 성격이 강했고, 이는 곧 교육 제도 형성에도 반영되어 독립전쟁을 지휘한 빌름 판 오란여(Willem van Oranje)공은 1575년에 네덜란드를 이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레이든 대학교(Universiteit Leiden)를 설립했다.

깔뱅주의는 신앙과 삶, 교회와 가정, 종교와 사회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사상을 강조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이 원리가 교육 전반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깔뱅의 언약 사상은 먼저 가정을 신앙 공동체의 첫째 단위로 이해하였고, 부모가 자녀를 신앙과 지식으로 양육할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것으로 여겼다(신 6:4-7, 31:13, 엡 6:4, Kruithof, 1990: 19-51). 둘째, 전인적 교육으로 신앙·지식·도덕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셋째, 문해력을 중시하여 모든 신자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강조가 문자 교육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넷째, 교육의 내용과 교사 선정에 있어 교회가 중심적이었다(Röling, 1994: 67).

네덜란드 초기 개혁교회는 학교를 교회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당시 지역 교회는 학교 설립과 감

독의 주체였으며, 목회자들은 교육 내용을 결정하거나 교사 임명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1618-1619년에 개최된 도르드레흐트(Dordrecht) 총회는 네덜란드 칼뱅주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 총회는 학교 교육에서 성경과 교리문답의 활용을 공식적으로 권장하였다. 이 결정은 이후 약 200년 동안 네덜란드 초등교육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Kruithof, 1990: 34).

이러한 전통 속에서 네덜란드는 17세기 유럽에서도 문해율이 높은 사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레이든 대학교 설립과 함께 지역 초등학교의 확산 등은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진 교육체제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교육에 대해 아직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모나 교회에서 감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 중심 교육은 18세기 계몽주의와 근대 국가 형성 과정을 거치며 급격한 도전에 직면하였고, 이는 훗날 학교 투쟁으로 이어지는 사상적 갈등의 출발점이 되었다.

2) 계몽주의 교육

네덜란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과 더불어 국가가 교육의 주요 감독 주체로 등장한 데 있었다. 17세기 소위 ‘황금시대’ 이후 네덜란드는 경제적 쇠퇴, 정치적 불안,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을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교회 중심 교육체계는 점차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계몽주의는 이 시기 교육 개혁의 핵심적 사상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네덜란드의 계몽주의는 프랑스·영국의 계몽사상과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이성, 합리성, 개인의 도덕적 완성, 사회적 진보 등을 강조하였다. 종교가 개인 영성·가정·교회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교육은 사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계몽주의 교육사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어 아동은 타락한 존재라기보다 본래 선과 호기심을 가진 존재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둘째, 합리적·자연주의적 교육을 강조하여 자연의 질서, 이성,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였다. 셋째, 도덕교육이 세속화되어 도덕은 종교 교리보다 인간의 사회적 유익, 덕성, 합리적 판단 등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 대표적 계몽주의 교육사상가인 마르티넷(J. F. Martinet)은 자연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종교 교육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교육 방식을 강조하였다(Martinet, 1777-79). 이러한 인식은 다른 계몽주의 교육가 전반에 공유되었다(Kruithof, 1990: 52-55).

이처럼 계몽주의적 근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교육가들은 교육이 쇠퇴하는 네덜란드 사회 및 국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열쇠라고 확신했으며 이는 목사, 교사, 지식인과 작가들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1784년에 재세례파 목사였던 얀 니우븐하위즌(Jan Nieuwenhuyzen)이 설립한 “공익 증진협회(Maatschappij tot Nut van ‘t Algemeen)”는 네덜란드 계몽주의 교육 운동의 핵심 기관으로 19세기 중반까지 일반 시민의 교육 수준 향상,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 그리고 교사 양성 및 교재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적 교육을 향상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Wolthuis, 1999: 52)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www.nutalgemeen.nl). 19세기 중반 이후 이 단체의 학교들은 대부분 공립학교로 전환되며 국가 주도의 교육체계 형성에 이바지했으며 이 학교에 대해 정부 재정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795년에 프랑스 혁명 정부가 네덜란드를 1813년까지 점령, 통치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더욱 확산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먼저 정교분리가 확립되어 공적 영역에서 교회의 권한이 축소되었고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게 되었다. 둘째, 국가 중심 행정 체계가 강화되어 종교적 중립이 공적 기준이 되었다. 그 결과 교육은 더 이상 교회의 고유 영역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Roelevink, (2004).

1806년에 제정된 학교법은 네덜란드 교육사를 전환한 핵심 법령으로 평가된다. 이 법제화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주로 “공익 증진협회”에서 활동하면서 계몽주의를 따르던 진보적 성향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 법은 초등학교를 공립학교(openbaar school)와 사립학교(bijzonder school)로 구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공립학교는 인정된 교육기관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았지만, 기존의 사립학교들은 특정 단체가 지원하는 사립학교와 부모들이 지원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공립학교 재정 운영의 책임은 지방 정부에게 있었으나 이후 중앙 정부에서 교사의 자격과 학교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적용해 나가면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체는 중앙 정부가 되었다. 나아가 이 학교법은 교육의 정책, 내용 및 감독 기능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켜 그 결과 공립학교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목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축소되었으며 교회의 감독 기능도 상실되었다. 그 결과, 공립학교 중심의 교육체계가 확립되었고, 교육의 목적을 ‘기독교적·시민적 덕성’으로 규정하되, 종파적 교육은 배제하였다. 따라서 공립학교 수는 증가하였으나 사립 기독교 교육은 점차 약화하였다(De Bruin, 1985).

1806년 학교법 이후 네덜란드의 교육은 사실상 국가주의적·근대적 시민 형성 교육의 도구로 변화하였다. 종교 교육은 공적 교육에서 축소되었고, 그 자리를 애국심·관용·근대 시민 형성 교육이 대체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긴장을 초래했다. 먼저 교회의 교육 영향력 약화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다. 둘째, 종교적 세계관 교육의 약화로 인해 기독교 공동체의 위기의식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립 기독교 학교의 재정적·제도적 불평등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긴장은 결국 19세기 들어 본

격화되는 “학교 투쟁(schoolstrijd)”의 사상적·정책적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 흐른 판 프린스터러와 카이퍼가 주도하는 기독교 학교 운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De Bruin, 1985).

2. 네덜란드 학교 투쟁의 전개

1) 제1단계(1806-1848): 사립 기독교 교육의 위기와 저항의 시작

1806년 학교법 제정 이후 네덜란드 교육이 교회 중심 질서에서 국가 중심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어 약 40년 동안 사립 기독교학교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약화하자,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자발적 저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공립학교를 국가 교육의 표준 학교로 규정하고, 사립학교를 ‘허용은 하되 지원하지 않는’ 교육체제로 편성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로, 사립 기독교학교는 재정적 기반을 상실, 교회나 지역 공동체의 헌금에 의존해야 했다. 둘째로, 교사 자격 기준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교사 양성 체계가 약화하였다. 셋째로, 공립학교는 국가가 정한 ‘종파적이지 않은 기독교적 도덕’을 가르쳤으며, 이는 전통적 교리 교육을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교육에서 점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De Bruin, 1985).

1806년 이후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나폴레옹 체제는 교육 행정을 더욱 중앙집권적으로 개편하였다. 이 시기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강화되었다. 즉, 국가가 교육 감독관(inspecteur)을 임명하여 학교를 관리하였고,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교사의 공립학교 편중 현상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사립학교가 교육체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다(De Bruin, 1985).

1830년대 들어 산업화, 도시화, 빈곤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공립학교 확대 필요성은 더욱 정당성을 얻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립 기독교 교육은 더욱 주변화되었다. 특히 다음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먼저 공립학교는 국가 보조를 통해 시설·교재·교사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사립 기독교학교는 이를 따라잡기 어려웠다. 둘째로, 교육의 ‘종교적 색채’ 감소로 인해 기독교적 세계관 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의 불만이 증가했다. 셋째로, 도시 중심으로 공립학교가 확대되면서 사립 기독교학교는 농촌·소규모 지역 중심으로 밀려났다. 그러자 당시 정통 칼뱅주의 기독교인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으며 결국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대안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자극하였다(De Bruin, 1985).

이 시기의 대표적 기독교 지성인이던 이삭 다 코스타(Isaac da Costa, 1798-1860)는 1823년에 계몽주의가 가져온 종교적 세속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신앙과 도덕을 포함한 전인적 형성 과정이어야 하며, 국가가 종교적 기반을 약화하면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공동체 정신

이 악화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다 코스타의 사상은 후대 흐른 판 프린스터리와 카이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사립 기독교 교육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Da Costa, 1823).

1834년 헨드릭 드 콕(Hendrik de Cock) 목사를 중심으로 한 분리 운동(De Afscheiding)은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내 신학적·교회적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이 운동은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으며, 교육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 분리 운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했다. 첫째, 교리는 중립적일 수 없으며, 자녀 교육은 신앙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공립학교의 '종파적 중립성'은 사실상 기독교 교육의 악화를 의미한다. 셋째, 공동체가 직접 기독교 교육을 세워야 한다. 그 결과, 이 운동은 곳곳에서 소규모 사립 기독교학교의 자발적 설립으로 이어졌다. 비록 법적·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는 신앙 기반 교육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Van den Berg, 1956).

그 결과 1848년에 자유주의적인 정치가 토르베케(Johan R. Thorbecke) 수상의 주도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 보장과 종교의 자유 강화 및 국가 교육의 틀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립 기독교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여전히 불가능했으며, 공립학교 중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법적으로는 학교 설립의 자유가 인정되었지만, 사립학교는 스스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비대칭 구조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 공동체는 점차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후 흐른 판 프린스터리(G.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와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주도하게 될 본격적인 정치·사회적 학교 투쟁의 준비 단계가 형성되었다.

2) 제2단계(1848-1917): 제도적, 정치적 투쟁의 본격화

이 단계는 제도적·정치적 투쟁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사립 기독교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한 종교적 불만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연합과 조직화된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운동의 배후에는 전술한 분리 운동과 더불어 1826-1854년에 네덜란드에 일어난 부흥 운동(Réveil)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부흥 운동은 계몽주의적 모더니즘 및 이에 기반을 둔 진보 신학적 입장을 거부하고 전통적 칼뱅주의 교리와 경건을 강조한 운동으로 경건한 생활 및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강조하였다. 이 운동의 지도자 중 헬드링(O. G. Heldring)은 교육의 중요성을 설교하였는데 크라우트호프는 그가 정통 칼뱅주의에 근거하여 시골에서 어린이들과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들을 설립하여 가르치면서 회개와 중생을 통해 새로운 삶이 가능함을 역설했음을 밝히고 있다(Kruithof, 1990: 143-146).

나아가 재세례파 목사였던 리프더(J. de Liefde)도 기독교 학교의 주창자로서 학교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은 바람직하지 못할뿐더러 어린이들의 정신에도 유해하므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를 수용하고 그 가운데 성장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부모는 교육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Kruithof, 1990: 153). 그는 계몽주의자들이 설립한 “공익 증진협회”에 대항하여 1855년에 “국민의 구원을 위한 연합(De Vereeniging Tot Heil des Volks)”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www.totheildesvolks.nl).

1857년에 판 라파르드(A. G. A. Van Rappard) 내각에 의해 제정된 교육법은 교육이 종파적 중립을 지킨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이 법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여전히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공립학교를 우대하는 결과를 낳았고,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는 신앙에 기반한 교육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결과 기독교계는 강하게 반발하였고 학교 투쟁 2단계가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흐룬 판 프린스터러였다(De Bruin, 1985).

흐룬은 네덜란드 부흥 운동의 창시자였던 빌더데이크(W. Bilderdijk)의 영향을 받았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사립 기독교학교의 설립 권리와 교육의 자유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감정적 투쟁보다 조직화와 공적 담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먼저 그는 1860년에 전국 기독교학교 교육협회(CNS: De Vereeniging voor Christelijk-Nationaal Schoolonderwijs)를 설립하여 기부금 모집, 학교 설립 지원, 정치적 로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Rosendaal, 2006: 32). 나아가 그는 교육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와 연계하면서, 재정 지원의 평등은 단순한 이익 배분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즉, 국가가 교육을 독점적으로 재정 지원할 경우, 양심에 따른 교육 선택권은 빈곤 계층에겐 사실상 박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흐룬은 의회 내외에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여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려 시도했다. 결국, 그의 담론은 종교적 정체성 회복을 넘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평등의 문제로 확장되었다(Kuiper, 2001 ; 최용준, 2023: 123-143). 그 결과 1867년에는 전국에 62개의 기독교 사립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자 1878년에 판 드 꼬 로(K. van de Coppello) 내각이 사립학교가 자체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새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안은 기독교교뿐 아니라 천주교 등 종파적 학교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개신교·가톨릭 양측에서 대규모 항의와 탄원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당시 국왕 빌름 3세(Willem III)에게 삼십만 명의 개신교도와 십만 명의 천주교도가 서명하여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왕은 이 법안에 서명하여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 탄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당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흐룬의 운동을 계승하여 정치적 정당화와 집단적 행동의 수준을 높였다. 카이퍼는 1878년에 반학교법 연합(Anti-Schoolwet Verbond)을 결성하였다. 이듬해인 1879년에 그는 이를 발전시켜 프랑스 혁명사상과 근대주의적 세계관에 반대하는 네덜란드 최초의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ARP, Anti-Revolutionaire Partij)을 창당하였다. 그 결과 의회 정치에서 기독교적 원칙을 대변할 조직적 통로를 마련했다. 이 정당은 교세 확장과 함께 정책 영향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고 따라서 그는 정치·사상적 지도력으로 기독교 교육 운동을 사회 운동에서 정당 정치로 이행하였다. 정당은 법 개정과 예산 배분을 위해 의회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그는 1880년, 삶의 모든 분야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면서 사회 변혁을 위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하였다. 여기서 이름을 ‘자유’라고 한 것은 국가나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영역주권(souveriniteit in eigen kring)’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Kuyper, 1880). 영역주권이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로 국가, 교회, 가정, 학교, 기업 등은 각기 독립된 주권을 가지므로 한 기관이 다른 기관들 위에서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은 원리적으로 잘못이며 수정되거나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원리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정체성·재정 평등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거가 되었다. 이 대학은 교육 운동을 뒷받침하였고, 정치 전략의 지속성을 보장했다.

흐룬과 카이퍼의 운동은 다음 세 가지가 결합하였다. 첫째, 사회 조직화, 즉, 전국 기독교 교육 협회와 반학교법 연합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부·학교 설립·교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신문·저술·연설을 통한 여론전으로 교육의 자유와 재정 평등의 당위를 확산시켰다. 셋째, 의회 내 정당을 통한 법 개정 노력, 탄원 및 선거 정치의 동원으로 제도적 변화를 추구했다. 이러한 전략은 사립학교 문제를 단순한 교육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양심의 자유·사회적 평등의 문제로 프레임화하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초기에는 개신교 내부의 문제로 보였던 사립학교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천주교와의 연대로 확장되었다. 천주교도 역시 사립학교의 재정적 불평등에 민감했기 때문에, 종파를 초월한 연대는 정치적 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국 기독교 교육협회”는 2015년 5월에는 천주교 교육센터와 통합하여 지금은 천주교 및 기독교 교육협회(Vereniging voor Katholiek en Christelijk Onderwijs)가 되었다(www.verus.nl).

3. 네덜란드 학교 투쟁의 제도적 성과

흐룬을 계승한 카이퍼가 주도한 학교 투쟁은 마침내 1917년에 열매를 맺어 평화조약(Pacificatie)이라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네덜란드 의회는 헌법 제23조를 개정하여 모든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은 의회의 정식 개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당시 코르트 판 데어 린든(Cort van der Linden) 내각은 정치적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조항은 8개 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교육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종교적·세계관적 신념에 기초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

다.¹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교육의 자유”로서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며 그 내용의 원리들을 결정할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네덜란드 시민은 누구나 학교를 설립하고 자신의 종교적, 이념적 또는 교육적 신념에 기초하여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20년에 구체적인 초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균등한 재정 지원이 집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립학교도 정부로부터 전액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카이퍼를 중심으로 한 신갈뱅주의자들은 당시 인구의 불과 10-15%에 불과한 서민들(네덜란드어로 “kleine luyden”)이었지만 교육 개혁 운동에서 네덜란드의 주도적 세력 중 하나가 되었고(Sturm, 1988: 9) 그 결과 1900-1930년 사이에는 공립초등학교가 전체의 31%였음에 비해 사립초등학교는 62%로 증가했다(Kruithof, 1990: 224). 이런 점에서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학교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현재 전체 학교의 70%가 사립학교이며 그 중 천주교와 개신교 학교가 각각 30-3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몬테소리 학교 등이 있다(Ritzen et al., 1997: 329).

4. 네덜란드 학교 투쟁 이후의 전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네덜란드를 특징짓는 사회조직의 형태를 기동 사회(verzuiling, pillarization)라고 불렀다. 이는 종교·이념(개신교·가톨릭·사회주의·자유주의 등)에 따라 사회가 여러 ‘기동’으로 분할되어 각 기동이 정당·노동조합·신문·학교·병원·복지 조직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말한다. 각 기동은 재정·조직·문화 등의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구성원에게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사회적 안정성과 응집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세계관의 공존을 가능하게 했다. 네덜란드에서 이 기동 사회는 특히 19세기 말 흐룬과 카이퍼 등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사회 조직화(예: 기독교학교 연합, 반혁명당, 자유대학교 등)와 천주교 측의 조직화와 결합하여 견고하게 형성되었다. 기동 내부에서 교육은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학교는 단지 지식 전달 기관이 아니라 공동체 정체성 재생산의 핵심 장치였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부터 네덜란드의 기동 사회가 약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복합적 원인이 있었다. 특히 1960년대 서구사회를 휩쓸었던 사상적 격변 및 사회적 변화는 네덜란드에도 다원적 자유주의를 확대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든 반면 이슬람의 증가에 따라 1990년대 이후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부터 신갈뱅주의 및 기동 사립학교도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다(Golverdingen, 1995: 38). 가령 자유대학교의 정체성 변화가 이를 바로 보여주는데 1971년부터 정체성의 범위를 신갈뱅주의

1) 네덜란드 헌법 제23조 전문은 www.denederlandsegrondwet.nl 참조.

에서 에큐메니컬로 확대하였고 2005년부터는 이슬람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상호인생관적 소통(interlevensbeschouwelijke communicatie)”을 강조했다(Miedema, 2006: 20).

동시에 교회 출석률과 종교적 실천의 쇠퇴는 종교적 기반의 집단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종교적 신념의 약화는 기둥 내부의 문화적·사회적 통합 기능도 약화했다. 나아가 복지국가의 확장 또한 개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교회·종교단체에서 국가로 이전시켰다. 또한 정당 간의 상호 협력·연합정치의 확산은 정파적 구분을 흐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중첩되며, 기둥 내부의 사회적 상호부조·정체성 재생산 기능이 사라지거나 약화하였다. 이를 네덜란드어로는 ‘ontzuiling(기둥 해체, depillarization)’이라 부른다.

이러한 기둥 사회의 약화는 교육영역에서 특히 가시적 변화를 낳았다. 첫째, 과거에 강한 교파적 정체성을 지녔던 많은 사립 기독교학교가 세속화·다원화의 영향으로 교육관·교사·학생 구성에서 변화를 겪었다. 교사의 신앙 비율 감소, 학생 가정의 종교적 구성 변화 등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전통적 모습이 약화하였다. 둘째, 교육과정·교사 자격·학력 기준 등에서 국가 표준화 경향이 강화되었고, 이는 학교 운영의 전문화와 교육 품질의 균일화로 이바지했다. 동시에 학교의 세계관적 독자성은 둔화하였다. 셋째, 종파 간 연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전환되면서 전통적 기둥 경계는 약화하였지만, 정책 연합이나 이익집단으로서의 기구는 남아 새로운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넷째, 이전 기둥 사회가 내부적 공론을 유지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적·대중적 공론장이 활성화되었다. 학교 교육에도 여러 세계관을 포함하는 다원주의적 커리큘럼 요구가 확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학교에도 실제로 반영되어 네덜란드의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열정은 많이 식었다. 물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부분적으로 기독교 유산에 대한 재발견과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와 같은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만 못하다(Rosendaal, 2006: 280). 네덜란드 사립학교 중 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부 기독교학교들은 원래 교회가 운영하였고 많은 경우 ‘성경을 가진 학교(school met de Bijbel)’라고 불렸다. 하지만 세속화의 영향으로 이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어 아직 기독교학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대부분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더이상 기독교 신앙이 없다. 가령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관한 드 볼프(Anneke De Wolff)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약 90% 그리고 학생의 약 70%가 개혁교회 신자들인 학교도 있으나, 도시의 기독교 사립학교 중에는 교사의 약 80% 이상이 개혁교회 신자들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무교가 63.4%, 이슬람 22.6%, 가톨릭 8.7%, 개신교 4.4%, 힌두교 0.8%로 이루어져 있다(Wolff, 2000: 258, 326). 이런 맥락에서 네덜란드의 공립학교도 다원주의를 주된 세계관으로 받아들여 교육의 공적 영역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했다(Ritzen et al., 1997: 330). 그러나 이런 다원주의가

교육의 재정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며 1917년에 제정된 법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네덜란드의 기독 사립학교는 이제 어쩌면 새로운 의미의 학교 투쟁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즉 1917년 이전까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해 투쟁했다면 이제는 기독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계속해서 훌륭한 기독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동 사회가 약화하였음에도 네덜란드의 핵심적 제도, 가령 헌법 23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유와 재정 평등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속적인 정당들이 헌법 23조 자체도 폐지 내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여 네덜란드 의회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관찰된다. 첫째, 아직은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제도가 유지되어, 새로운 종교·이념적 단체(예: 이슬람 학교, 자유주의·진보적 교육공동체 등)도 동일한 법적·재정적 지위를 요청하거나 확보할 수 있었다. 즉, 기동의 형성 방식은 변화했지만 ‘교육의 자유’라는 법적 원칙은 다양한 주체의 등장에 열려 있었다. 둘째, 많은 전통적 기독학교는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교육적 포용성·다원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했다. 가령 기독교적 가치와 다원적 교육 목표를 병행한 것이다. 셋째, 다원주의가 확대되며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적 표현, 복장·예배·교과서 선정 등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이슬람 공동체의 교육적 요구, 가령 종교적 교육 장치·여학생 복장 규정 등은 공적 규범과 충돌하는 사례를 낳아 정치·법적 논쟁을 촉발했다. 마지막으로 다원적 사회에서의 ‘공동선’ 확보를 위해 학교는 시민교육, 사회적 연대, 법치·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적응을 시도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국가 중심 교육체제가 강하게 형성된 한국 상황을 재고하는 중요한 비교 기준을 제공한다.

5. 네덜란드 학교 투쟁의 역사가 한국 상황에 주는 함의

이러한 네덜란드의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 공교육의 약화와 사교육비 폭증, 그리고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고 획일화하는 대신, 학부모와 학교 설립 주체(종교, 사상 등)의 자율성을 보장할 때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역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는 네덜란드에서 ‘교육의 자유’가 헌법 23조에 명문화되어 사립학교의 설립과 재정 지원을 정당화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즉, 교육의

자유는 단순한 행정적 선택권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이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켜야 하는 공적 가치임을 보여준다.

둘째, ‘자율성’과 ‘재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확립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교육부로부터 재정 보조금을 받는 대신 자율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네덜란드처럼 헌법적 차원에서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립학교가 고유의 건학 이념(종교 교육 등)을 자유롭게 구현하면서도 공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이에 준하는 법적 안전장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교육의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정치·사회적 참여가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참여는 단순한 이해관계 추구나 집단적 이익 확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계의 정치·사회적 연대와 조직화는 헌법적·제도적 성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종파 간 긴장과 사회적 논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 학교와 학부모들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참고하여, 교육 자율성과 공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참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참여는 단순한 권리 확보가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연대,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 속 공공선에 이바지하는 지속적·책임 있는 노력으로 이해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법적 안전장치와 연계된 참여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건강한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

넷째,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의 다양성 확보이다.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네덜란드가 인적 자원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여 지금은 교육 선진국 및 경제적으로도 강소국이 되었다. 지금도 네덜란드 정부가 학생 한 명당 투자하는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역시 교육열이 경제 및 국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획일화된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적 안목과 책임감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각기 다른 철학과 방법론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성만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사는 “교육의 자유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쟁취하고 지켜내야 할 권리”임을 웅변한다. 이제 한국 사회도 국가 독점적 교육관에서 탈피하여,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어가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하고, 한국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역사적 준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III. 결론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이 단순한 사립학교 재정 지원 요구를 넘어, 기독교 교육의 공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신앙에 기초한 교육의 자유를 공적 영역 안에서 정당화하고 제도화해 나간 장기적 시민·헌법적 투쟁이었음을 밝혔다. 흐른 판 프린스터리의 고독한 외침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 카이퍼의 조직적인 정치 투쟁으로 이어진 이 역사는, 결국 19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동등한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의 자유’를 제도화하는 열매를 맺었다. 네덜란드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교육을 사회 전체의 도덕적·문화적 토대를 형성하는 공적 책무로 인식하였고 성경에 기초한 교육이 국가의 발전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확신 하에 100년이 넘는 기간 끝까지 투쟁하여 네덜란드에서는 이 역사를 ‘학교 투쟁’이라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사는 기독교 교육이 공적 재정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기독교 학교들은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국가에 대한 종속이나 특혜로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독교 교육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사회적 연대와 도덕적 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선에 이바지한다는 분명한 자기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네덜란드의 기독교 교육은 ‘자율성’과 ‘공적 책임’을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가치로 통합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한국의 교육 현실에 중요한 도전을 제기한다. 한국 사회도 개화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도 선교사들과 민족의 선각자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가능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도전으로 한국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 학교와 교육은 최근에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그 정체성과 자율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동시에 기독교 교육이 공적 영역에서 어떠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이 단결하여 백 년이 넘도록 투쟁했던 노력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비교사적 시사점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은 기독교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의 통제에 순응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안에서 신앙에 기초한 교육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증언할 때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교육이 정치·사회적 논쟁을 회피하거나 주변화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교육의 한 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험을 한국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네덜란드는 종교·이념적 다원주의가 사회 구조 속에 제도화된 역사적 맥락과 정치 문화, 그리고 합의 민주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학교 투쟁의 성과를 제도화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국가 주도의 근대화 과정과 중앙집권적 교육 행정, 입시 중심 문화라는 상이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모델은 하나의 ‘정책 처방’이 아니라, 교육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비교사적 준거 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이후 다른 국가들(예: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의 교육 자유 모델과 한국을 비교하는 더욱 확장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자유가 다문화·탈종교화 사회에서 어떠한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긴장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이 축적될 때, 본 연구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한국 교육 개혁 논의에서 더욱 실질적인 이론적·정책적 토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조성국 (2009). 네덜란드 기독교학교운동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학교의 과제에 주는 함의. **기독교 교육 논총**, 20(1), 21-52.
- 최용준 (2017). 네덜란드 교육의 재정 정책에 관한 고찰: 역사적 접근. 박상진·이길재·최용준·강영택.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pp. 65-111). 예영.
- 최용준 (2023). 흐른 판 프린스터리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3호, 123-143.
- Anders, F. (2011). De Schoolstrijd in Nederland. geschiedenis.nl (검색일 2025.12.28)
- Broer, N. A. Van der Walt, J. L. & Wolhuter, C. C. (2024). Educational Freedom and Educational Ideals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Christianity & Education*, 28(1), 101-119.
- Da Costa, I. (1823). *Bezwaren tegen den Geest der Eeuw*. Leiden: Herdingh & Zoon.
- De Bruin, A. A. (1985). *Het ontstaan van de schoolstrijd, onderzoek naar de wortels van de schoolstrijd in de Noordelijke Nederlanden gedurende de eerste helfde van de 19de eeuw; een cultuurhistorische studie*. Dissertation, Ton Bolland.
- De Groot, I. Daas, R. & Nieuwelink, H. (2022).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Dutch schools: A bumpy road. *Journal of Social Science Education*, 21(4), 1-31.
- Golverdingen, M. (1995). *Mens in beeld: antropologische schets ten dienste van de bezinning op onderwijs, opvoeding en pedagogische theorievorming in reformatorische kring*. J. J. Groen en Zoon.
- Hooker, M. (2009). *Freedom of Education: The Dutch political battle for state funding of all schools both public and private (1801-1920)*. Llyfrawr. [Place of publication not identified]
- Knippenberg, H. (1986). *Deelname aan het lager onderwijs in Nederland gedurende de negentiende eeuw*.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eit van Amsterdam.
- Kruithof, B. (1990). *Zonde en deugd in domineesland: Nederlandse protestanten en problemen van opvoeding zeventiende tot twintigste eeuw*. Amsterdam: Universiteit van Amsterdam.
- Kuiper, R. (2001). *Tot een voorbeeld zult gij blijven. Mr. G.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 Buijten en Schipperheijn.
-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rede ter inwijding van de vrije Universiteit*. J. H. Kruyt.
- Langedijk, D. (1937). *De schoolstrijd in de eerste jaren na de wet van 1857 (1857-1866)*. Kok.

- Martinet, J. F. (1777-1779). *Katechismus der Natuur*. Wed. Loveringh & Johannes Allart.
- Miedema, S. (2000). *De comeback van God in de pedagogiek*. Vrije Universiteit.
- Miedema, S. (2006). Naar de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als een daadwerkelijk interlevensbeshouwijke universiteit”. in Voorsluis B. (Ed.) (2006). *Beweegredenen: VU-wetenschappers en levensbeschouwing*. VU Podium & Vereniging VU-Windesheim.
- Praamsma, J. M. (2006). Verkenning in het landschap van de christelijke pedagogiek. in DeGraaf, R. (Ed.) (2006). *Bijzonder onderwijs: Christelijke geloof in de dagelijkse praktijk van basis-en voortgezet onderwijs*. Boekencentrum.
- Ritzen, J. M. M., Van Dommelen, J. & de Vijlder, F. J. (1997). School finance and school choice in the Netherland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6(3), 329-335.
- Roelevink, J. (2004). *The Batavian Republic: Between Enlightenment and Revolution*. Amsterdam University Press.
- Rosendaal, A. C. (2006). *Naar een school voor de gereformeerde gezindte: Het christelijke onderwijsconcept van het Gereformeerd Schoolverband (1868-1971)*. Verloren.
- Röling, H. Q. (1994). Onderwijs in Netherland. in Kruihof, B., Noordman, J. & DeRooy P. (Ed.) (1994). *Geschiedenis van opvoeding en onderwijs: inleiding bronnen onderzoek*. (5th ed). Sun.
- Sturm, J. C. (1988). *Een goede gereformeerde opvoeding over neo-calvinistische moraalpedagogiek (1880-1950), met speciale aandacht voor de nieuw-gereformeerde jeugdorganisaties*. J. H. Kok.
- Van den Berg, J. (1956). *Hendrik de Cock en de Afscheiding van 1834*. Kok.
- Van Dyke, H. (1989). *Groen van Prinsterer's lectures on unbelief and revolution*. Jordan Station, Wedge Publishing Foundation.
- Van Prinsterer, G. G. (1847). *Ongeloof en revolutie*. S. en J. Luchtmans.
- Wijck, B. H. C. K. (1885). *De schoolstrijd*. J. B. Wolters.
- Wolff, A. De. (2000). *Typisch christelijk?: een onderzoek naar de identiteit van een christelijke school en haar vormgeving*. Kok.
- Wolthuis, J. (1999). *Lower Technica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1798-1993: The Rise and Fall of a Subsystem*. Garant.
- www.denederlandsegrondwet.nl (검색일 2025.12.28)
- www.nutalgemeen.nl (검색일 2025.12.28)
- www.totheildesvolks.nl (검색일 2025.12.28)
- www.verus.nl (검색일 2025.12.28)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의 역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History of School Struggle in the Netherlands

최용준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19세기 네덜란드에서 전개된 학교 투쟁(Schoolstrijd)의 역사적 전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기독교 교육이 직면한 제도적·공적 과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은 국가의 교육 독점에 맞서 종교적·세계관적 신념에 기초한 교육의 자유를 요구한 장기적인 정치·사회적 투쟁으로, 19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 학교에 대한 재정적 평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흐룬 판 프린스터리와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덜란드 개혁주의 전통이 학교 투쟁의 사상적 기반을 어떻게 제공하였는지를 고찰한다. 이들은 기독교 교육을 사적 신앙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사회의 도덕적 토대를 형성하는 공적 책무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 교육이 국가 재정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적 자율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 기독교 교육이 방어적 권리 주장에 머무르기보다,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공공선에 이바지하는 교육으로서의 비전과 공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제시해야 함을 주장한다. 네덜란드 학교 투쟁의 경험은 한국 기독교 교육 담론에 중요한 비교사적·신학적 준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학교 투쟁, 기독교 교육, 공적 책임, 개혁주의 전통, 교육의 자유